

제1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최우수상 수상작

1930년대 한국 신여성의
피해자로서의 자기 인식이 갖는 특징과 그 형성 배경
- 신여성을 둘러싼 지배담론과 이선희의 작품 「연지」와
「계산서」를 중심으로-

이름: 조지혜

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학번: 2001-13875

강좌명: 사회과학 글쓰기(2004년 2학기)

담당 교수: 정병기

< 목차 >

- I. 들어가며
- II. 여성의 분열된 자아와 피해의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III. 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가부장제의 목소리
 - 1920~30년대 신여성을 둘러싼 담론을 중심으로
 - 1.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 주체의 등장
 - 2. 가부장제의 지배적 담론과 신여성의 억압된 목소리
- IV. 여성이 피해자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과 특징
 - 이선희의 「연지」와 「계산서」를 중심으로
 - 1. 체험을 통한 현실 인식-가부장제가 안겨주는 억압과 상실의 체험
 - 2. 분열된 자아와 피해의식, 그리고 피해자로 자기 규정하기
- V. 나가며

I. 들어가며

나는 누구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인간은 누구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물음을 던지며 살아간다. 그러한 물음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자신 안에서 고립된 채로 이뤄지기보다는 언제나 나를 둘러싼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나와 세계와의 만남은 조화와 화해보다는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렇기에 나를 찾아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고통일 수밖에 없다.

때로는 사람들은 그 고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세계가 규정하는 나를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통의 무게를 감내하며 끝까지 갈등과 충돌로 영커버린 실타래를 풀어나가고자 몸부림을 친다. 그 몸부림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치유해나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해나간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과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 또한 그 과정에서 여성의 정체성은 어떠한 독특성을 갖게 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본 연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물음이다.

시몬느 드 보브와르는 『제2의 성』에서 여성들의 자아가 가부장제에 의해 끊임없이 타자화되었다고 주장한다.¹⁾ 그는 남성이 자연과 타인에 대한 정복을 실현하면서 여성을 강력하게 지배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여자의 운명은 남자의 사유 재산과 결부되어 뿌리 깊은

1) 시몬느 드 보브와르의 견해에 대해서는 정혜숙의 논문 「시몬느 드 보브와르의 타자성의 사유체계」(『한국프랑스학논집』 제29집, 2000)을 참고함.

종속의 역사를 걷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주체이며 절대이며 본질인 남성
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 상대적인 존재, 비본질적인 존재인 타자로 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다. 이는 여성을 끊임없이 타자로 위치지우는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풀어가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본 연구에서도 여성의 정체
성을 형성하는 데 가부장제가 중요한 형성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실제로 여성을 타자로 규정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에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성이 자신의
욕망과 현실세계의 요구 사이에서 간극이 있음을 자각할지라도,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인정
하고 수용하기까지는 자아의 분열과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여성은 세계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억압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성이
가부장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자신을 가부장제의 피해자로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30년대 한국의 신여성 문학에서 여성 주인공들이 가부장제의 피해자로
서 자신을 인식해가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여성들이 가부장제의 피해자로서
자신을 발견해가고, 여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아의 분열
과 피해의식이 어떠한 특성과 의미를 지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의 분
열된 자아와 피해의식을 여성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기존의 연구를 비판할 것이다. 또한
1930년대 시대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여성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
아의 분열과 모순, 그리고 피해의식이 가부장제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 것임을 구
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본격적으로 여성의 분열된 자아와 피해의식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형성되어가는지 밝히기 위해서 1930년대 신여성 작가인 이선희의 소설 「연
지」(1938)²⁾와 「계산서」(1937)³⁾를 살펴볼 것이다.

1930년대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 대한 회의와 반성에서 여성주의지향 문학이 발생했던
시기이다. 이는 지금까지 남성과 똑같은 시각으로 남성의 문학과 같은 수준의 문학을 낳기
위해 밖으로 돌렸던 시선을 돌이켜 여성 자신으로 향하게 하였다는 데 여성문학 사상 큰 의
미가 있다고 하겠다.⁴⁾ 특히 이선희는 여성해방 의식을 지닌 신여성의 의식세계를 추적해
보여주었다는 점⁵⁾에서 연구대상으로서 적합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이선희의 작품 「연지」와 「계산서」에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
성이 피해자로서 자신을 인식해가는 과정과 그 속에서 겪게 되는 자아의 분열과 피해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작품 분석을 통해, 이러한 자아의 분열과 피해의식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독특한 여성의 경험으로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이선희의 1938년 작품 「연지」는 『월북작가 대표문학』(韓國圖書出版中央會, 瑞音出版社, 1989, pp.342-371)을 참고함.

3) 이선희의 1937년 작품 「계산서」는 『페미니즘 정전 읽기: 근대소설편』(송명희·안숙원·이태숙 편, 푸른사상, 2002, pp.222-238)을 참고함.

4) 서정자, 『한국 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 2001, p.263.

5) 서정자, 앞의 책, p.265.

II. 여성의 분열된 자아와 피해의식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덕화는 「신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⁶⁾에서 우리나라의 신여성 작가들에게 내면화된 타자의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 등 초기 신여성 작가들은 「신정조론」⁷⁾ 혹은 「자유연애론」⁸⁾에 기반을 두어 기존의 결혼제도를 비판하고 구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찾아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세 여성문인들은 봉건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남성들에 의해서 격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의 실천은 '타락' 혹은 '방종'으로 비치게 되었다.

신여성에 대한 끊임없는 지탄과 비난은 실제로 신여성 작가들의 내면에 분열을 일으켰는데, 이덕화는 이와 같은 내부 분열은 여성 자신이 스스로 봉건성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덕화의 논의를 통해서, 신여성들이 극복하려고 한 사회제도나 도덕적 관습은 오히려 그들의 내면에 깊이 박혀 있어서 자신의 삶을 타자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여성들의 삶에 타자의식이 각인되었다는 사실은 신여성들이 왜 자신의 주장과는 모순된 분열적인 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도록 해준다.

그러나 이덕화는 신여성들이 타자의식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신여성들의 삶이 파멸하게 된 원인을 여성 내부에서 찾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시각은 여성 내부의 문제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여성의 타자의식을 형성해온 사회적 맥락, 즉 가부장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적 맥락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한계는 이덕화가 초기 신여성 작가의 좌절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초기 신여성 작가인 김명순이 자신의 학업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포부를 실천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 것은 “소심하고 결벽증이 심한 그의 피해의식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러한 피해의식이 봉건적 사상이 가진 논리를 극복하지 못한 김명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여성의 피해의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부장제

6) 이덕화, 「신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여성문학연구』 제4집, 2000.

7) 김일엽은 육체의 정조를 강조했던 기존의 성도덕은 여성의 인격과 개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조는 도덕관념이 아니라 본능적 감정이며 과거에 다른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맺었던 것과 상관없이 새로운 상대를 순수한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정조를 지키는 것이라 주장했다(김일엽, 「나의 정조관」, 조선일보, 1927년 1월 8일자 참고).

나혜석은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한 결정권은 자기가 가져야 하며, 그것은 취미와 같은 것이어서 개인의 선택에 맡겨둘 것이지 도덕이나 체도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말하며 김일엽보다 급진적인 정조관을 제시하기도 했다(나혜석, 「신생활에 들면서」, 『삼천리』, 1935년 2월; 나혜석, 이상경 편집교열,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을 참고함).

8) 1920년대 신여성 작가들은 엘렌케이의 자유연애론을 받아들였다. 그는 사랑을 영혼의 성장과 개인의 행복에 제일가는 필수요건으로 놓음으로써 개인과 사회,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필요를 주장했다. 신여성들은 구체제의 관습에서 개인의 선택권이 무시된 조혼과 같은 결혼생활이나 사랑이 결여된 결혼생활을 비판했다.

라는 사회적 맥락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전은정은 「근대 경험과 여성주체 형성과정」⁹⁾에서 지배세력이 만든 담론의 지형 속에서 신여성이 어떻게 침묵을 요구 당했으며 때로는 능동적으로 주체를 구성해나갔는지 밝히고 있다. 전은정은 신여성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불안정하고 모순적인 자아를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하기보다는 지배담론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여성의 정체성은 지배담론이 재현해내듯이 단일하고 고정되었으며 불변하는 것이 아니었다. 일제시기 신여성들은 주어진 정체성을 자신들의 구체적 경험과 계속적으로 협상하면서 전략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왔던 것이다.

전은정의 관점은 신여성의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가부장제 사회의 지배적 담론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배경을 잘 드러냈다. 이러한 관점은 여성이 왜 분열된 자아의 모습과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용이하다.

나는 전은정의 관점이 보다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신여성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이 드러난 신여성 작가의 작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당시 신여성들은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의 경험을 세밀하게 드러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그렇기에 작품 안에서 당시 신여성을 규제했던 지배담론과 여성 자신이 가부장제의 피해자로서 자신을 인식해나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포착해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경험한 자아의 분열과 피해의식이 어떠한 특성과 의미를 지니는지 더 풍부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1930년대 신여성들을 둘러싼 가부장제의 지배담론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III. 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가부장제의 목소리

- 1920~30년대 신여성을 둘러싼 담론을 중심으로

1.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 주체의 등장¹⁰⁾

1920-30년대는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인 특성을 지닌다. 당시 일제의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정치적 억압 아래 놓여 있으면서도, 모순적이게도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서구의 근대사상과 문화가 급속히 유입되고 있었다. 또한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던 전통적 관습과 제도들이 붕괴되고 근대적 가치와 문화가 그 자리를 빠르게 대체해가는 충돌과 갈등, 변화와 역동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층적이고 모순적인, 그러면서도 다양한 일상의 ‘새로움’을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 공간은 식민지라는 정치적 한계 속에서도 개인들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주체를 구성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주었다. 그것은 특히 오랜 역사 동안 역사의 주변인이던 종속적 지위에

9) 전은정, 「신여성/식민지, 근대, 가부장제의 교차로: 근대 경험과 여성주체 형성과정」, 『여성과 사회』 제 11호, 2000.

10) 이명선, 「근대의 ‘신여성’ 담론과 신여성의 성애화」, 『한국여성학』 제19집 2권, 2003.

있어왔던 여성들에게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의미했다. 무엇보다 근대사회에서 여성들은 교육이나 종교, 직업 등의 사회활동을 체험하고 인쇄매체 등 대중매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변화들은 여성의 삶의 공간을 재조직하고 여성의 세계를 가정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의 영역으로 확대시켜주었다. 여성이 사회적 영역에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은 ‘가정/여성’, ‘사회/남성’이라는 전통적인 공사 영역 분리의 경계를 위반하는 행위였으며, 이는 오랜 가부장적 질서와 성별 구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변화, 그리고 새로운 여성 주체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흐름의 한가운데에 신여성이 있었다.

2. 가부장제의 지배적 담론과 신여성의 억압된 목소리

초기 신여성들은 외모나 몸을 통해 가부장적 전통과의 단절, 혹은 여성으로서의 자각이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즉, 신여성의 몸/외모의 변화는 단순히 유행이나 서구적 스타일의 차용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치적 행위의 의미를 가졌다. 서구식 외모를 통해 관습적인 여성성을 부정하는 것이란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단발의 경우는 단순히 아름다움의 추구가 아니라, 여성들에게 있어서 전통과 구습의 사슬을 끊는 상징적인 행위였다.¹¹⁾ 그러나 신여성의 외모/몸은 그들의 정체성과 분리되어 ‘구두’나 ‘종아리’ ‘단발’ 등으로 분절된 채 점차 남성적 시선의 대상으로 전유되었다. 남성에게 의해 신여성의 몸이 성적 대상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근대사회에서 신여성이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새롭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신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고 의사나 화가, 시인으로서 공적인 영역에서 유능함을 드러내게 되면서, 신여성들의 존재는 일반인에게 관심과 선망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중매체들은 신여성의 사회적 삶보다는 미모나 연애, 결혼, 성적 문제와 같은 사생활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었다. 신여성이 애인 혹은 연애상대로서 대중의 호기심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신여성의 존재가 공적인 쾌락과 욕망의 대상 혹은 관음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

신여성은 남성의 애인으로서 욕망과 쾌락의 대상으로 찬미되지만, 이 여성들은 언제든지 정조를 상실한 여성 즉 ‘탕녀’로 타락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여성으로 묘사되었다. 신여성은 물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정조도 버리는 여성이며, 자신들의 정조 문란을 ‘여성해방’이나 ‘여성운동’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난받았다. 가부장적 사회는 여성들이 가정을 벗어나는 것,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성적인 문란’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초기 신여성 작가들은 자유연애론을 주장하며 전통적인 결혼제도와 성 관념을 부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서구의 자유연애론에 영향을 받은 김명순, 김원주, 나혜석 등 동경유학생 출신의 당시 신여성 작가들의 급진적 주장

11) 전은정, 「근대 경험과 여성주체 형성과정」, 『여성과 사회』 제11호, 2000, p.39.

12) 이명선, 앞의 책, p.23.

과 삶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타파되지 않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수용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은 가부장제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비난받았다.

그렇기에 1930년대에 활동한 제2세대 작가들은 단순히 신여성으로 명명되던 제1세대 여성 작가들과 거리감을 유지하려 하였다. 1930년대 여성작가들은 제1세대 여성 작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뿐만 아니라 당대 현실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강경애나 박화성 등은 여성의 개인적 원체험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데 그친 제1세대 여성문학과는 달리 현실 세계에 대한 균형의식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부장제의 뿌리가 깊게 남아 있었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배운 새로운 사상과 지식은 철저히 ‘가정’ 내에서 사용되도록 격려되었고, 특히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여성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이 심화되면서 우리 민족은 가정을 통해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회복하려는 열망이 강해졌다. 게다가 일제는 황국신민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성을 이용하려 하였다.

이제 신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등의 사상을 내면화하고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공적 영역에의 참여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보다 권위 있는 목소리에 기대어 자신들의 의견을 펼쳤던 신여성들은 무리 없이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여성문제들을 이슈로 부각시킬 수 있었다.

1930년대에는 교육 받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신여성의 활동이 초기 신여성들보다 더욱 활발해졌지만, 1920년대 신여성에게 가해졌던 비난은 1930년대 신여성 작가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힘을 발휘했다. 실제로 1930년대에 발표된 남성 작가의 소설 속에서 신여성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모성애를 상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삶에 대한 성찰이나 사상적 기반이 취약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30년에 발표한 김동인의 작품 「무능자의 아내」¹³⁾에서 작가는 무능한 남편을 버리고 떠난 영숙이라는 여성이 조선의 신여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작가는 영숙이 집을 떠난 것은 진정한 떠남이 아니라 남편이 자신을 붙잡아주기를 원하는 몸짓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신교육을 받으면서 공부에 목적을 두게 되자 함께 데려간 딸 옥순이를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영숙을 묘사하면서, 영숙을 모성애가 결핍된 여성으로 비난하고 있다. 신여성의 사상적 각성은 ‘일시적 반항심’ 혹은 ‘일시적 들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작품에서 드러난 작가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의 노라, 인습을 때려 부순 용사, 가정과 남편을 뒷발로 차버린 투사, 이러한 여러 가지 명예 있는 이름으로써 그들은 영숙이를 맞아 주었다. 그러나 기실 영숙이는 노라가 아니었다. (중략) 그러나 노라가 가정과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달아난 데 대하여 자세하고 완전한 이해를 못 가진 영숙이는 자기를 그 유명한 문호 입센이 세상에 보여 준 한 대표적 이상적 여성 노라와 같은 사람으로 믿은 것뿐이었다. (중략) 그의 주위에도 한 그룹이 생겼다. 그것은 모두 영숙이와 같이 가정과 남편을 뒷발로 차던지고 뛰쳐나온 사람들로 조직된 한 그룹이었다. 그들

13) 김동인의 1930년 작품 「무능자의 아내(아내)」는 『범우비평관 한국문학: 김동인편』(범우사, 2004, pp.338-349)을 참고함.

은 모이면 남성의 포악함을 욕하였다. 남성-더구나 남편이라는 남성의 우월감과 거기서 나온 압제를 저주하였다. 그리고 여자의 해방을 부르짖었다. 우리도 사람이다 하였다. 그리고 아무 불평과 불만 없이 가정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정에서 뛰쳐나오기를 권하였다. 남편을 반역하기를 권하였다. 모성을 무시하기를 권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표어는 인습을 벗어 버리라는 것이었다.(김동인, 「무능자의 아내」 pp.346-347)

입센(Ibsen)의 희곡 「인형의 집」이 우리나라에서 1921년 <매일신보>에 연재되면서, 주인공 ‘노라’는 신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주인공 노라가 자신이 가부장제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인형에 지나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가정을 떠난다는 내용은 여성의 주체적 자각과 해방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당시 신여성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신여성들이 삶을 통해 보여준 실천들은 남성들에게 의해 거부되고 있었다. 신여성들의 실천은 ‘노라 흉내내기’ 정도로 폄하될 뿐이었다.

이처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의 삶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었고, 신여성의 삶을 단편적이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비난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토대 자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남성들은 신여성들이 가정의 영역에서 떠나는 것을 여성해방을 실천하는 한 측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모성을 부정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1930년대 신여성 작가들은 여성의 문제를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로 종속시킴으로써 여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작품을 통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폭력성과 모순, 그리고 억눌린 여성의 삶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작품 속에는 여성들이 체험을 통해 현실을 인식해가고 자신을 피해자로서 규정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아의 분열과 피해의식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IV. 여성이 피해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과 특징

- 이선희의 「연지」¹⁴⁾와 「계산서」¹⁵⁾를 중심으로

14) 「연지」는 여성이 모성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금녀는 전처가 죽은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 그는 전처의 아들인 국채의 어머니 노릇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순적인 감정을 느낀다. 아이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면서도 그런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금녀는 아이에게 어머니 노릇을 잘 해내기를 바라는 식구들과 남편이 갖고 있는 모성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어렸을 적 좋아했던 명재와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금녀는 자신의 딸 소민과 함께 떠나는 과정에서 명재가 자신과 같이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하는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깨닫고 명재와 헤어지기로 결심한다.

15) 「계산서」는 불평등한 부부관계를 자각하게 되는 주인공 ‘나’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 소꿉장난 같은 결혼생활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나는 아이를 유산하고 다리 하나를 절단하는 경험을 통하여 불구자로서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내가 불구자가 된 이후 남편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날 나는 멀쩡한 남편의 모습과 한쪽 다리를 잃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는 절망하게 된다. 이는 가부장제 하에서 부부관계의 불균형을 깨달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때부터 나는 남편의 위로가 가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새 넥타이를 매고 황급히 나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을 것이라 생각하며 집을 떠난다. 그리고 위자료로 남편의 목숨을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체험을 통한 현실 인식—가부장제가 안겨주는 억압과 상실의 체험

한국 근대 여성 소설들은 동시대 남성작가의 소설들에 비해 자전적 경향이 강하다. 이는 여성작가들의 사회의식이 빈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해진 가부장적 억압으로 인한 체험이 다른 무엇보다 먼저 고통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여성작가들의 자의식이나 정체성의 단초는 자기의 구체적 생활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며, 그로 인해 그 소설은 자전적 소설이 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신여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주인공들은 억압이나 상실의 체험을 통해 가부장제의 모순과 불균형을 인식해가는 경우가 많다. 「연지」와 「계산서」에서도 여자 주인공들은 억압과 상실의 체험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인식하게 된다.

「연지」에서 금녀는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모성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어머니 되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전처의 자식을 데려와 기르는 과정에서 금녀는 가족들의 요구하는 ‘어머니 되기’가 자신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엄마 똥 뉘 똥”

무엇을 의미하는 엄마든 아이가 엄마란 말을 한 이상 금녀는 벌써 그의 엄마로 예약이 된 바 이제 이 시중을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금녀는 지금 처음으로 당해보는 엄마노릇이 연극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피곤한 것을 알게까지는 못되었으나 그대로 늦졌다. ‘거짓말이다’ 금녀의 신경 속엔 어디엔가 이 말이 생길려고 했다.

(중략)

금녀는 되도록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음성을 천연스럽게 하노라 했스나 목멘 밥을 먹드시 무엔지 목을 꼭 조르는 것 가땀다. 모두가 어떻게 피곤하고 어려운 기술인고!¹⁶⁾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금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시중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가족들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모성인 것이다. 이는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부여하는 성역할 각본과 모성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주체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강요된 요구가 삶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 여성의 의식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은 이러한 사회의 요구를 현실의 문제로 체험할 때 비로소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것임을 느끼게 된다.

「계산서」에서는 주인공이 아이를 유산하고 다리를 절단하는 상실의 경험을 통해 가부장제의 모순과 불균형을 자각하게 된다. 주인공인 나는 남편과 함께 아기자기한 ‘모조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나의 삶에는 생존에 대한 치열한 싸움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아이를 갖는 것도 현실로서 다가오지 않았다. 그에게 남편과의 사랑의 관계가 자신을 형성하는 가장 큰 삶의 맥락이었다. 그러나 주인공은 신체적인 상실의 아픔을 체험하고 예전

16) 이선희, 「연지」, 『월북작가 대표문학』, 1989, pp.348-350. 이후에 인용한 글은 인용한 문장 옆에 작품명과 쪽수만 기록함.

과 달라진 남편과의 관계를 느끼게 된다.

혹 영원히 적의 침략을 받지 아니 할 피난처—느긋한 해초의 향기를 풍기는 햇빛의 복지—길들지 않은 남양의 새와 같은 내가 마음껏 제주를 부릴 수 있는 무인도—. 이러한 섬이 곧 나는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이 섬에서 내가 다리하나쯤 잃었다고 그 자유로운 영토가 줄어들 리가 있을까. 타조와 같이 활발한 내 즐거운 장난을 거절할 이유가 될 것인가.

(중략)

그와 나는 이 도적과 같이 입한 어둠을 가운데 두고, 오랫동안 술래잡기를 했다. 진실로 우리의 애정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단지 싱거운 수작 같으나 이것을 몸소 짝어 맛을 본 남자나 여자에게 있어서는 실로 깜짝 놀라고야 말 진리가 될 것이다. 나는 차차 남편에게 미안을 느꼈다. 그리고 늘상 빛을 진 것같이 마음이 무겁고 깨름직했다.¹⁷⁾

주인공에게 남편은 ‘영원히 적의 침략을 받지 아니 할 피난처’와 같은 존재였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과 의미를 찾고 휴식을 누렸다. 그러나 다리 하나를 상실하는 체험을 계기로 남편과의 관계는 부자연스러워지고 가식적으로 변해갔다. 신체적인 상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빛을 진 것과 같이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여성이 상실의 체험을 통해서 달라진 부부관계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 나아가 주인공은 자신과 남편이 거울 앞에서 대면하는 장면에서 부부관계의 불균형을 인식하게 된다.

너무도 초췌한 내 모양과 너무도 두드러지게 완전한 그의 모양이 두 사람 가슴에 똑같이 비수를 박는 것처럼 선뜻한 아픔을 주었다. 나는 거울 속을 한참 노리고 서서 무섭게 커진 눈과 광대뼈가 내비친 노란 얼굴을 바라보다가 외투 소매를 부드득 하고 물어 뜯었다. 나는 성난 짐승과 같이 내 등뒤에 붙어섰는 그를 떼밀고 외투를 벗어 방바닥에 동태이를 쳤다.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소?”

남편은 이 말을 입버릇처럼 내세워 가지고 나를 달래려 들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어디가 죽는 것보다 나은 데가 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소?’는 결국 나를 속이는 엄청난 사기술이었다.

(중략)

“다리 하나가 무슨 상관이요. 아직 우리에게 세 개의 다리가 더 있지 않소?”

그러나 이것은 멀쩡한 거짓말이다. 세 개의 다리는 늘 네 개의 다리보다 못하다는 것은 나보다도 그 자신이 먼저 깨달은 바이리라. (『계산서』, pp.228-232.)

남편이 사온 외투를 입고 거울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자신과 남편을 보면서, 주인공은 자신과 남편의 관계가 본래 불균형적이었음을 자각하게 된다.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여성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상처입고 불구가 되어버린 여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여성에게 상실의 체험은 가부장제의 모순과 불균형을 자각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17) 이선희, 『계산서』, 『페미니즘 정전 읽기: 근대소설편』, 2002, p.231. 이후에 인용한 글은 인용한 문장 옆에 작품명과 쪽수만 기록함.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편의 아내, 그리고 아이의 엄마가 되기를 요구하는 가부장제의 목소리는 여성에게 억압과 상실의 아픔을 안겨주는 구체적인 체험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은 외부적으로는 여성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실체를 응시하도록 이끌며, 내부적으로는 여성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한다.

2. 분열된 자아와 피해의식, 그리고 피해자로 자기 규정하기

여성은 자신을 둘러싼 가부장제의 모순과 억압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망을 자각하게 된다. 타인이 자신에게 요구하고 틀 지우는 힘이 강력할수록, 오히려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그것에 반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욕망을 발견해간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던 진실과 대면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들이 이 욕망을 드러내고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안정적인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이국으로 떠나는 일과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부장제가 여성의 삶을 강하게 틀 짓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자각하고 가부장제의 모순에 다가서는 순간 여성은 불안과 혼란 속에서 자아의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

「연지」에서 금녀는 자신에게 ‘어머니 되기’를 강요하는 가부장제의 억압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어머니 되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나 금녀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애초부터 봉쇄된 가족들의 요구와 시선을 감지하면서 자아의 분열을 겪게 된다.

금녀는 당장에 뛰어들어가서 아이새끼부터 목아지를 배틀어서 짹짹 찌저노코 그담엔 칼로 돌아가며 푹푹 찢러 꺼꾸러트렸으면 속이 후련할 것 가땀다. 이와 가튼 광증에 가까운 분노는 삼년 동안 금녀의 생활의 태반이 그러해서 이제는 제이 천성이 되기에 아무런 부족이 없게 되었다. 금녀는 여전히 눈꺼풀에 경련을 이르키며 부엌으로 드러가 부뚜막에 열이 빠진 듯 걸터 앉자 잇섯다. 그때 금녀의 귀엔 분명히 아이를 짹짹 찢는 소리가 들렸다. ‘에 못할 일이다.’

(중략)

‘사실 그 아이 자체가 미운 것이 아니라 애비가 있고 외할미가 있고 또 그 액덕을 바라서 필요 이상의 친절과 애정을 자기 남편 아페서 발휘하는 그 고모가 있는 까닭에 이러한 배경 속에 그 아이의 존재는 꺾어지 미운 것이다.’

금녀는 자기의 괴롭이 크면 클수록 지긋지긋이 그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치와 관계를 생각해 안힐내야 생각지 안힐 수가 없다. (「연지」, pp.351-352.)

금녀의 분노는 내면에서 극단적으로 표출되면서도 동시에 자신에 의해 강하게 통제되고 있다. 이는 여성이 가부장제의 모순을 자각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발견하더라도 그 목소리는 가부장제가 부여하는 논리에 의해 규정되고 억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외부에서 부여하는 기준에 끊임없이

이 자기 자신을 맞춰왔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망에 귀 기울이고자 할 때 그 자아는 끊임없이 모순되고 분열된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아의 분열을 겪으면서 금녀는 자신을 사랑했던 명재를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명재를 찾아가는 길에 <장화홍련전>을 사게 되고, <장화홍련전>의 내용을 자신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게 된다. 금녀는 가부장제의 피해자로서 자신을 재규정하고, 명재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당화하려 한다.

“이 책에 잇는 대단히 악한 게모는 악한 게 아니예요. 지금 나도 그러케 되고 잇는 중이니가요. 자고로 전혀 자식과 게모 사이란 귀신이 요기를 부리는 것이예요. 더구나 게모에게 동정하는 사람은 없구요.”

(중략)

“내가 나는 자식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모든 아이를 귀여워할 수도 잇서도 단지 전혀 자식만은 미운 것입니다. 이것이 밍지 안타면 그것은 거짓말이예요.” (「연지」, pp.362-363.)

분열된 자아와 억눌린 분노로 인해서 금녀가 겪어야 했던 갈등과 고통은 가부장제의 피해자로서 자신을 발견하도록 이끌었다. 이는 금녀가 그의 생각을 규제해왔던 가부장제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재해석한 것이다. 비록 금녀는 모든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성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다층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했지만¹⁸⁾, 가부장제의 모순을 인식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창조할 수 있었다.

「계산서」에서 나타난 여성의 피해의식은 왜곡되고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왜곡되고 확대된 피해의식은 오히려 가부장제의 억압과 폭력 속에서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 여성의 감정이 잘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산서」에서 주인공 여성은 남편이 새 넥타이를 매고 황급히 나가는 모습을 목격한 후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아갔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무작정 집을 떠나는 과정에서 자신이 남편에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남편은 새 넥타이를 매고 두 다리가 성한 계집을 찾아갔다.’

얼마나 비밀하고 우스운 생각이랴. 그러나 나는 그 밤에 그렇게 생각지 않고는 마치 않았으며 지금도 오히려 이것을 믿고 남음이 있는 바다.

(중략)

내 한쪽 다리가 내 몸뚱이를 바칠 수 없는 거와 같이 내 마음에도 버티어 나갈 아무 것도

18) 나혜석은 「모된 감상기」(『동명(東明)』 1923. 1. 1~21.)에서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모성을 절대시하고 신비화하는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이는 전처의 자식을 길러야 했던 금녀의 체험,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현실인식과는 또 다른 측면을 제시해준다.

“자식이란 모체의 살점을 떼어가는 악마’라고 정의를 발명하여 재삼 숙고하여 볼 때마다 이런 걸작이 없을 듯이 생각했다. (중략) 잠오는 때 잠가지 못하는 자처럼 불행 고통은 없을 터이다. 이것은 실로 이브가 선악과 따먹었다는 죄값으로 하나님의 분풀이보다 너무 참혹한 저주이다. 나는 이러한 첫 경험으로 인하여 태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모(母)가 불쌍한 줄을 알았다.” (나혜석, 「모된 감상기」, 『나혜석 전집』, 2000. pp.230-231.)

없다. 이쯤 되고 보면 내 목숨 또는 우리의 생활은 파산인 것이다. 나는 어떤 의미로나 이 이상 더 견디어 나갈 도리가 없다. 하면 나는 이제 우리 생활의 총결산을 가장 정직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중략)

나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 이것은 내게 불구자란 약점이 생길 때부터 생각해온 문제다.

나는 내 남편도 나와 같이 다리 하나가 병신되기를 배웠다. 남편의 다리 하나—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다리 하나쯤으로는 엄청나게 부족하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은 그의 목숨 그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생명을 받아야 겨우 수지가 맞을 것 같다. 이것은 내 계산서뿐만 아니라 모든 안해된 자의 계산서일 것이다. (「계산서」, pp.235-237.)

가부장제에서 상처받은 여성은 극도의 자아 분열과 피해의식 속에서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성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소 왜곡되고 뒤틀린 모습일 수 있다. 하지만 왜곡되고 비이성적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의식은 바로 여성이 경험하는 피해의식의 본질을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은 자신을 가부장제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가부장제의 억압과 폭력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자신을 피신시키고자 한다. 피해의식에 싸인 여성은 고통과 두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자신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여성의 피해의식은 가부장제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여성의 또 다른 생존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이 피해자로서 자신을 규정해가는 과정에는 가부장제의 착취를 경험한 고통과 분열된 자아로 인한 혼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한 피해의식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IV. 나가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일정한 방식으로 틀 지우려 하고 그에 맞는 역할 규범을 요구한다. 특히 여성에게 가정이라는 영역은 가부장제의 논리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은 여성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강요되어왔다.

이는 1930년대 신여성을 둘러싼 지배담론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신여성에게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신여성을 끊임없이 성애화하는 시선은 신여성의 존재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또한 신여성들의 사상과 실천은 남성들에게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노라 흉내 내기’로 폄하되거나, ‘모성이 결여된 무자비한 어머니’ 혹은 ‘타락한 여성’으로 형상화되었다. 이처럼 1930년대 신여성들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끊임없이 타자화되고 있었다.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찾아가고 세계를 인식해가는 과정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억압 그리고 상처가 놓여 있다. 그렇기에 여성이 자신의 내부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분열, 피해의식

등은 개인의 문제로 이해하기보다는 가부장제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욕망과는 괴리된 채로 여성에게 주어지는 규범은 그 삶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자신의 구체적인 체험을 통하여 가부장제의 논리가 가진 모순과 허구성을 발견하게 된다. 여성의 체험은 가부장제의 모순을 비춰주는 하나의 진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은 자신의 체험을 받아들이고 그 체험에 기반하여 세계를 재조명하기까지, 자신의 욕망과 사회의 요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된다. 그리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욕망은 세계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내부 속에서 억압되고 좌절되면서 분열된 자아와 피해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가부장제의 착취를 경험한 고통, 분열된 자아로 인한 혼란,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의식이 몸에 각인되면서 여성은 가부장제의 피해자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여성이 피해자로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자아의 분열과 피해의식은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독특한 여성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열된 자아와 피해의식을 통해 드러나는 왜곡되고 뒤틀린 여성의 모습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여성에게 가하는 억압과 폭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내주고 있다.

여성이 피해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자신을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여성이 피해자로서 자신을 인식해가는 과정에는 세계를 재조명해내는 힘 또한 존재한다. 가부장제의 논리를 거부하고 대안적 공간으로 탈출하도록 하는 힘이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가부장제의 억압으로 인해 여성에게 각인된 상처와 고통 이면에는 언제나 새로운 소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참고 문헌

- 김동인, 「무능자의 아내」, 『범우비평판 한국문학: 김동인 편』, 범우사, 2004.
- 김일엽, 「나의 정조관」, 『조선일보』, 1927년 1월 8일자.
- 나혜석, 이상경 편집교열,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 서정자, 『한국 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 2001.
- 서정자, 「페미니스트 성장소설과 자기발견의 체험: 강경애의 <어머니와 딸>, <인간문제>, <소금>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7집, 한국여성학회, 1991.
- 송명희·안숙원·이태숙 편, 『페미니즘 정전 읽기: 근대소설편』, 푸른사상, 2002.
- 송무 외, 『젠더를 말한다』, 도서출판 박이정, 2003.
- 안혜련, 「1920년대 한국 여성소설에 나타난 이중적 타자성」, 『현대문학이론학회』, 제 1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3.
- 이덕화, 「신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여성문학연구』 제4집, 한국여성 문학학회, 2000.
- 이덕화, 「특집: 여성적 글쓰기로서의 자서전」, 『여성문학연구』 제8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 이명선, 「근대의 ‘신여성’ 담론과 신여성의 성애화」, 『한국여성학』 제19집 2권, 한국여성학회, 2003.
- 이선옥, 「‘집’으로부터의 탈출 욕망과 여성의 정체성 탐색-이선희론」, 『현대소설연구』 제 6집, 한국현대소설학회, 1997.
- 전은정, 「신여성/식민지, 근대, 가부장제의 교차로: 근대 경험과 여성주체 형성과정」, 『여성과 사회』 제11호, 한국여성연구소, 2000.
- 정혜숙, 「시몬느 드 보브와르의 타자성의 사유체계」, 『한국프랑스학논집』 제29집, 한국프랑스학회, 2000.
-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근대편』, 한길사, 1995.
- 韓國圖書出版中央會, 『越北作家 代表文學 5(월북작가 대표문학)』, 瑞音出版社, 1989.